

# “우리가 제 1당”... 국민의당 호남 챙기기

### 장병완 ‘임 행진곡’ 기념곡 지정 원포인트 국회 개최 요구

### 박주선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시내에 면세점 유치해야”

국민의당 지도부가 호남 챙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역구 의원들 대부분이 호남 출신이라 호남의 현안에 밝을 뿐 아니라 호남 1당의 위치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일단 국민의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앞두고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매년 기념일마다 반복되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원포인트 국회’ 개최를 요구했다. 또 정부의 면세점 추가 설치 방침과 관련, 광주 등 호남지역에 면세점 유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직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곡으로 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정부는 결정된 바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현상태가 지속된다면 5·18 행사는 종전처럼 정부가 모른 척하고 지나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장 의장은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희생자 간의 영혼 결속을 위한 의미 있는 노래이고, 광주만의 노래도 아니고 운동권만을 위한 노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5·18이 오기 전에 공식 지정곡으로 하거나 제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원포인트 국회’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임시국회 본회의가 오는 19일 예정돼 있으나, 18일 전에 국회가 정부에 이를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선 호남지역에 면

세점 유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광주와 전남·북에는 면세점이 한 곳도 없음에도 서울에만 면세점을 추가로 선정하겠다는 것은 관광 자원마저 서울에 집중시키겠다는 것으로서, 정부의 단편적인 관광정책”이라면서 “광주를 비롯해 서남해안은 관광·문화

자원이 대단히 우수하지만 면세점이 없어 관광이 위축되어 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광주에 시내면세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최고위원은 “지난 30일 중국 상하이로 방문해 중국 대표여행사인 카이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올해 7월부터 180일 안에 광주에 2만명의 관광객을 보내기로 했다”면서, “작년말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수도도 상징되는 역사자산, 정음성 선생 출생지라는 상징성, 중국 총영사관 소재 등 중국과 교류협력

의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광주에 면세점을 설치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함과 동시에, 대중국 진출과 문화교류 거점공간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 내정자도 “관광자원이 전국 도처에 있는데 관광도 서울로 집중하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며 “신규 면세점 4곳을 허가할 때 지방에 면세점을 조금씩 배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철수 “신산업 옥석 가려야”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신산업 옥석가리기에 대한 우려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안철수 “검찰 소환 박준영, 원칙대로”

국민의당은 2일 공천 현금을 받은 혐의로 박준영 당선인이 이날 검찰에 소환된 것과 관련, 옥시나 모를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깨끗한 정치를 기치로 창당한 신당으로서 박 당선자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의 이미지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단호하게 대처, 혁신 의지를 다지는 한편 ‘공부하는 정당,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반영하듯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당규대로,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차기 원내대표로 내정된 박지원 의원 역시 “우리 당헌·당규는 (기소시) 당원권

정지인데, 박 당선인이 저하고 충분히 얘기했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박 당선인이 20대 국회 최초로 구속될 경우, 지지율 상승세가 꺾이는 위기감도 보이고 있다. 또 안 대표가 박 당선인의 전락공천장에 도장을 찍은 만큼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성급하게 대응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의 금품을 받았다든 혐의의 시점이 국민의당 입당 이전이라는 점에서 불행 중 다행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안 대표는 당직개편을 고만중이라며 “원외 인사도 적극 기용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박지원 “한은 돈 찍으면 대통령이 값나”

### “현 실정 사과해야 협조”

국민의당 원내대표로 합의를 맺은 박지원 의원은 2일 “김영삼 대통령도 IMF(국제통화기금 위기사태) 때 사과 했잖나. 지금이 그때보다 더 심각한데 왜 사과를 못하느냐”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께서 솔직히 그런 걸 시인하고 사과할 때 우리가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취임사 때 눈물을 흘리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습을 생각해야 한다”며 “구조조정 당한 노동자에 대해 정부가 취업 알선이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무조건 하려면 설득이

되느냐. 구조조정은 재정으로 하든 공적자금을 넣든 양적완화를 하든, 한국은행 돈 찍어서 하면 대통령이 값나. 국민 세금으로 값는 것이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테러방지법 개정 문제와 관련, “전국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도청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는 건 헌법정신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장직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사과하면서 우리에게 국회의장도 협조를 구하면 국민정서도 대통령을 도와주는 게 좋지 않느냐는 여론이 나올 것”이라며 “그런 두고 봐야지, 국민의당 38석을 갖고 국회의장을 당선시키는 힘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박지원-김홍걸 이번엔 ‘이희호 대선 권유’ 설전

### 박 “출마 권유 받아”...김 “어머니는 모르는 얘기”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당 국민통합위원장과 국민 의당 박지원 의원 간 설전이 2일에는 이희호 여사의 ‘대선 출마 권유설’을 놓고 벌어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박 의원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희호 여사로부터 대선 출마 권유받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 여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며 문제 삼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박 의원은) 어머니가 대선 출마해라 하고 권유했다고 어떤 종편에다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께 여쭙보니까 전혀 모르는 얘기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에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제가 답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이 여사가 편지로 선물을 보내준 내용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모자간 얘기는 전문이고, 저와 이 여사 간 얘기는 인륜인데 개입하고 싶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실정을 인정한 뒤 협조를 요청하면 국회의장직을 새누리당에 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을 둘러싼 신경전은 이날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라디오에서 “군사정권 이후로 여당의 대표도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청와대와 협의하겠다’ 이렇게 대놓고 말한 적이 없다”며 “국회의장 뽑는 것은 국회의원이 알아서 논의하는 것이지 청와대와 얘기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제가 답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이 여사가 편지로 선물을 보내준 내용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모자간 얘기는 전문이고, 저와 이 여사 간 얘기는 인륜인데 개입하고 싶지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더민주, 새누리에 지지율 1위 내줘

### 리얼미터, 당 내홍에 3.9% 하락 27.6%...새누리 28.4%

‘전당대회 연기론’ 등을 둘러싼 내분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의 여론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새누리당이 1위 자리를 다시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는 지난 달 25~29일 전국의 성인 유권자 253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1.9%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더민주의 지지율은 27.6%로, 전주에 비해 3.9%포인트나 떨어졌다고 2일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은 28.4%로 전주보다 0.3%포인트 상승했으며, 국민의당도 1.2%포인트 오른 24.9%를 기록하며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더민주는 4·13 총선 이후 2주간 지켰던 1위 자리를 새누리당에 내줬으며, 3위인 국민의당에 오차범위 내의 격차로 쫓기게 됐다.

리얼미터는 “더민주의 전대 연기론과 경선론 등 지도부 개편을 둘러싼 내용과 김종민 비대위 대표의 ‘위안부 합의 이행’ 발언 등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호남에서 무려 10.6%포인트나 떨어진 27.6%에 그쳐 국민의당(50.6%)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도 더민주 문제안 대표가 25.2%로, 1위를 지켰으나 전주에 비해서는 1.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0.7%포인트 오른 19.1%, 새누리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0.8%포인트 오른 10.4%)로 각각 2위를 이었다. 자세한 조사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새누리, 오늘 원내대표 선출

새누리당은 오는 3일 4·13 총선 당선인대회를 열어 20대 국회의 첫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20대 국회에서 나란히 4선이 되는 기호 1번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당선인, 기호 2번 나경원(서울 동작) 의원, 기호 3번 유기준(부산 서구동구) 의원이 출마해 3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경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 후보가

없을 때는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된다.

이번 경선은 경쟁한 경쟁력을 갖춘 4선 후보가 나서면서 어느 진영도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 변수로 ‘박심’(朴心·박근혜 대통령 의중), 후보들의 출신 지역, 협상 대상이 될 야당 원내대표, 경선 당일 현장 분위기가 거론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 모델 지리산 온천지구내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 세미나실 / 객실, 2~4층 - 객실
-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용 6억3천만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10억 (일시불 조정가)
- 리모델링 공사비 4억 별도
- 리모델링 후 연 4억원 순수익 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

### 여수, 대지매매

- 전남 여주시 서교동 668-7, 8번지 서교동 로타리 우리은행 바로 옆
- 대지 260평 (120평 140평 분할 가능)
- 일반 상업지역 / 6차선 도로 접 / 현, 주차장
- 시세 / 감정가 - 23억원
- 용 12억 5천만원 있음 /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협의
- 병원 / 사무 / 무인텔 / 상가 / 대형마트 등등 적합
- 1층 조립식 건축 후 상가 임대료 1,200만원 예상
- 주인직매 H. 010-8829-6876

### 대단위 APT 밀집지역 근린상가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 7층 건물 중 701호 (7층 전체) 130평 (실형 89평)
- 대형주차장, 4면유리, 전망최고
- 감정 / 시세 - 7억
- 매매 - 5억 6천만원
- 용자 - 3억 6천만원 포함
- 현재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3백만원 임대중
- 주인직매 H. 010-3605-5000

### 오천경매

- ▶ 비법 배우면서 투자하실분!
- ▶ 특수 물건과 NPL만 전문취급
- ▶ 교육비 1200만원
- ▶ 예약 상담 필수

대표 최선규  
H. 010-3605-5000